

“광주 구청들 건축민원처리 15일 맞춰주요”

광주시건축사회 소요기간 조사
남 21·동 20·서 19·광산 18일
“공무원 안일·제도 개선 희망”

광주시 5개 구청별로 소규모 건축 관련 인허가 소요기간이 최대 8일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22일 “2017년 기준 연면적 661

m²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m² 이하 일반건축물인 분리감리지정 건축물 519건을 대상으로 각 구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북구를 제외한 대부분 구청이 건축민원처리법정기간 15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19건의 대상 건축물 중 90%에 달하는 468건에 대해 시민들의 허가신청일무를 대행한 건축사들로부터 허가신청일과 허가일을 회신받아 집계한 결과로 평균소요

기간이 동구는 20일 서구는 19일, 남구는 21일, 북구는 13일, 광산구는 18일로 자치 구별로 큰 차이가 났다.

또 용도별로도 단독주택에 대한 평균소요기간은 동구가 19일, 서구가 17일, 남구가 20일, 북구가 11일, 광산구가 15일로 나타났으며, 근린생활시설은 동구가 19일, 서구가 21일, 남구가 23일, 북구가 18일, 광산구가 23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기간 지연과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시민들의 경제 활동 등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건축사회는 이와 관련 “건축과 관련한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많은 분야에서 낙후돼 있는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사항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공원위원회 1회 연임 제한

광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22일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녹지 조례 제51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정했던 기존 조례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공원녹지 조례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시공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광주시 공원녹지과(062-613-4242)로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 배우며 일하는 기쁨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은 지난 19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개념 및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정책 및 모델 발굴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평생학습형 일자리’란 지역 주민이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재능·역량을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로 창출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창조적 일자리를 말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제공>

미디어아트-광주 광산업 연계 방안 협의

‘미디어아트 협의체’ 2차 회의

광주시는 지난 20일 오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유관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문화원, 전남대, 조선대, 한국광기술원, 호남대 등 10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창·제작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하고 광산업 기업체와 미

디어아트 문화콘텐츠 연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관별 유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디어아트 콘텐츠 발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3차 회의는 오는 10월 열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 일원에서 ‘2018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과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항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협의체와 미디어아트 관련 사업들을 통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콘텐츠를 하나씩 발전시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향유를 통한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동 단위 ‘풀뿌리 자치’ 첫발 디딘다

행안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서구·북구·광산구 공모 선정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 자치단체 공모에서 광주 서구(주민자치, 보건복지 분야)와 북구(주민자치 분야), 광산구(보건복지 분야)가 최종 선정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공동체 내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혁신프로젝트다.

북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읍면동 행정혁신 등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이 대표적

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도자치단체 공모를 추진, 심사를 거쳐 30개(주민자치 분야 14, 보건복지 분야 16) 시·군·구를 선도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주민자치 분야에서 서구, 북구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광산구, 서구가 선정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행안부와 협력해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멘토링과 성과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는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실행하도록 유도하면서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연말 우수사례경진대회를 열어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신용동 ‘경제 종합지원센터’ 내일 개소

민선 7기 ‘1호 공약’ 실현

일자리 연계·현장 민원실

광주시 북구가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민선 7기 민생경제 활성화 핵심사업의 첫 시동을 건다.

북구는 22일 “오는 24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신용동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신용동 문화신포 1층에 ‘경제 종합지원센터’와 ‘현장민원실’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제종합지원센터는 민선 7기 제1호 공약으로 첨단·분촌산단 등 기업현장 가까이에서 산업단지 구조조도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매칭, 기업규제 개선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전담 추진한다.

또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분촌산단에서 직접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산·학·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각종 협력 사업들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해 나간다.

특히 문 구청장은 경제상황판을 구청장실에 설치해 고용률·취업자수 등 각종 경제지표,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을 상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종합지원센터에는 신용동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민원실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

그동안 신용동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행정처리와 아동수당 등 복지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현장민원실 개소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게 북구의 설명이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각종 행정 민원과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 민원발급기를 함께 설치해 각종 서류 발급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종합지원센터는 분촌·첨단 산단 간 접근성이 좋고 여러 아파트와 가까운 첨단2지구 신용동 문화신포 1층에 설치됐다. 오는 24일 오전 10시 개소식을 개최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간 예정이다.

문인 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자위소방대 합동 훈련

광주시 소방학교는 지난 20일 광산구 소촌동 소방학교 본관과 생활관에서 광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초기 화재진압체제 구축, 실전과 같은 상황훈련으로 자위소방대 임무별 수행능력을 높이고 현장대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다. <광주시 제공>

몽칩시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뜨면 중개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중개사님! 실장님!들이 많습니다.

(주)가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 개발지, 시행처, npl, 급매물 등 계약성사가 빠른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20여명의 직원들끼리 손님과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함께 파이팅 하실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연락처 010-2800-3589